

광주시, 의료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2030년 '글로벌 메디시티' 만든다

2002년부터 의료산업 기반 확보 내년 펩타이드 생산클러스터 구축 2030년 의료산업 매출 2.3조 목표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의료헬스케어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4일 광주시는 2002년부터 광주테크노파크 타이타늄특수합금센터에서 시작하여 의료헬스케어산업을 꾸준히 육성해 현재 치과를 비롯, 바이오, 광의료, 정형외과, 코스메디케어, 안과, 치매, 마이크로 의료로봇 등 의료산업 기반을 대폭 확장시켰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를 중심으로 치과와 정형외과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를 포함해 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최근 3년간은 연평균 18.4%씩 고성장하는 등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매출액 2억원, 고용인원 22명, 단 2개에 불과한 관련 기업이 2020년 기준 매출 1조828억원, 고용 4525명, 사업체 수 519개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외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으면서 의료산업이 고용 유발형 차세대 지식기반 산업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시는 의료헬스케어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를 위해 의료산업 신기술 개발과 산업기반 고도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14년부터 생체의료소재부품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선정·육성해 기존 임플란트 중심의 금속 소재 지원을 고분자, 세라믹, 실리콘 등의 소재로 확대하면서 치과, 정형외과, 안과광학, 생체흡수성 소재, 고기능성 화장품, 인공 지능 디지털 바이오헬스산업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품 개발

부터 임상 적용까지 전 주기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생체의료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조성된 기업 클러스터는 전국 최고라는 평가다.

초소형 의료기기로 진단·치료·약물 전달을 수행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육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다. 내년부터는 바이오헬스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전남 대병원이 중심이 돼 의사와 기업이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개발, 임상, 사용성 평가 등 모든 주기를 함께 진행하는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기반이 취약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순도 펩타이드의 대량생산을 위한 대용량 고순도 펩타이드 생산 클러스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치매에 특기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등도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2030년 의료산업 매출 2조3000억원, 고용 9000명, 기업 2000개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 메디시티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장애인체전) 성화 봉송 출발식

경북도, 전국체전 성화 봉송

성화 봉송 출발식 개최 "안전체전 메시지 전달"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장애인체전) 성화 봉송 출발식이 4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성화봉송 출발식은 안전한 성화 봉송을 기원하는 구미 무을농악보존회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성화 전달, 성화합화, 최초 주자들의 성화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송되는 성화는 개천절에 강화마니산 참성단(전국체전)과 구미 금오산(장애인체전)에서 각각 채화된 불꽃으로 체전 개최지역을 돌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도청을 출발한 성화는 강화 구간을 포함해 102개 구간, 1013km, 776명의 주자들에 의해 봉송되며 전국체전은 오는 8일에, 장애인 체전은 20일에 구민시민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된다.

도청에서 첫 번째 구간을 봉송한 최초 주자는 2021년 경북도와 구미시에 신규 임용된 MZ세대 공무원으로 선정해, 한국 체육 새로운 100년의 출발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의미를 담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회장을 훤히 밝히고 국민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안전한 성화봉송과 위드 코로나의 시금석이 되는 안전체전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광주전남 의료기관, 5년간 진료비 4억 6000만원 환불

10건 중 3건 부적절 진료비 청구 인정

광주와 전남지역 의료기관에서 10건 중 3건이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로 인정돼 환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금액은 5년동안 4억6000여만원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동안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청구한 '부적절 진료비 환불신청'은 11만5258건으로 이 중 2만8769건(25%)이 환불 인정됐다. 환불금액은 87억원이며 1건당 평균 30만2526원이다.

광주는 5년동안 4139건이 신청돼 이 중 1079건(26%)이 환불 결정돼 3억3341만9000원이 환자에게 지급됐다. 전남은 같은기간 총 2009건으로 이

중 666건(33.1%) 환불, 1억3078만8000원이다.

지역별 5년간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43만8000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16만4000원이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으며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 26.6%였다. /전남=김태수 기자

전남도, 1107곳 생활밀접 시설물 안전점검

대규모 재난사고 위험지역 집중점검

전남도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노후 위험·생활밀접 시설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는 노후 위험·생활밀접 시설 등 1107곳을 선정해 시설물 이상 유무와 함께 사업장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그동안 시행했던 행정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행정기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관리주체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점검 실행제와 사후관리 책임제를 통해 책임성 강화는 물론 도민 참여 확대, 안전문화 확산 등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도는 정부의 점검대상 선정기준과 별도로 대규모 재난사고 위험지역을 추가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광주 동구의회 6개 부서, 기관경고 처분

광주 동구의회 등이 기초의원인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4일 광주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동구의회 등 6개 부서가 A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총 697만6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구의회 등은 A의원이 대표로 등록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 취임 전 해당 식당을 거의 이용하지 않다가 취임 뒤 여러 부서가 식당과 거래했고, 주로 의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게 감사위의 판단이다.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간주돼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A의원 측은 이에 대해 "영리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광주시 "광주 맛집 신청하세요"

광주시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미향광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9기 광주 맛집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광주 맛집은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정·운영하며,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6개 테마로 나눠 음식의 맛과 멋, 서비스 수준, 위생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60여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영양군 한승환 부군수 취임

한승환 신임 영양부군수가 지난 1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경북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영양부군수로 임명된 한승환 부군수는 영양군청에서 오도창 군수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경북 철곡 출신인 한승환 부군수는 지난 1990년 철곡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기획관실, 감사관실 등을 두루 거쳐 2019년 경상북도 산림산업과장으로 승진했다. 경북도 자치행정과, 기획관실,



신임 한승환 영양부군수 취임식

감사관실을 거쳐 산림산업과장, 경상북도의회사무처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 등 경북도의 주요 직책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이번 영양부군수로 부임하였다.

/경북=김태우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대장동 실체 규명 수사 속도 /사진 뉴스스
▲ 박영선 "도쿄 아파트 처분" 의혹 불기소 처분

▲ 질병당국, 임신부 코로나19 접종, 유산·기형아 발생 영향 없어
▲ 백신패스, 미접종자 차별 논란... 거부감 강화 우려



▲ 남북 통신선 재복원... 대화재개 기대감 /사진 뉴스스
▲ 서울시, '5회 서울 바이오의료 컨퍼런스' 개최